

눈앞의 물난리

자신에 대해 무언가 터무니없게 짜증이 날 때가 있다. 그럴 때 자신이 부끄러워하고 다시 조립할 수 있는 장난감이라면 얼마나 좋으랴 싶기도 하다. 토끼의 간이라면 맑은 물에라도 나가 행구어 낼 수 있으면, 이렇게 가끔은 목은 때를 씻어내고, 혼자만의 방에서 까닭모를 심연의 눈물을 퍼 울리고 싶은 이상한 욕구가 일어난다.

끝없는 동굴에 자신을 내려놓고 참회의 시간과 자정(自淨)의 시간을 스스로에게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합당한 도심의 생활을 떠나 이번 여름에 나는 기한 부 출가를 위해 성복동에 있는 길상사를 찾았다. 시계와 핸드폰은 자진 반납되어서 이제 시간도 멈춰 버렸다. 뉴스도 없는 이곳은 무중지대나 다를 없었다.

“맑고 향기롭게”의 주회측은 우리의 의식주를 완전히 책임져 주었다. 소유라하는 것은 없으니 심신이 훌가분 하였다. 일의일발(一日一鉢)의 간편한 생활. 이렇게도 살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자유를 체험할 수 있었다. 수령 250년, 혹은 백여 년이 넘는 여러 그루의 느티나무에서 매미들이 힘차게 울었다. 신 새벽에 조용히 들을 거니는 것도 좋았다. 그러나 내가 충격적인 울림을 받은 것은 내가 울림을 받을 때였다. 서툰 손놀림으로 목기(木器) 네 그릇을 펴 놓고 다같이 오관계(五觀盥)를 의을 때였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고?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갑자기 막혔던 가슴 속으로 전류가 지나가는 듯 했다. 나는 그동안 자신의 덕행(德行)에 대해 한번도 생각해 볼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내 자신이 사실 검덕(檢德)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차차 나도 음식을 조급하게 뜯어 먹었다. 욕심껏 갖다 놓던 슬관때문에 버리지도 못하는 그 음식들을 먹어 치워야 할 때의 고역이란 바로 다음날 내 욕심의 소치, 그 탐욕의 덩어리

를 보는 듯 했고 그것을 씹고 있다는 생각조차 들었다. 자업자득임이 뻔했다. 백여 명이나 되는 대중의 식사와 설거지는 30분이면 끝이 났다. 놀라운 지혜였다. 한 조각의 설거지한 물을 청수통에 모았다. 물이 조금이라도 더러우면 물을 다시 나누어 먹게 했다. 나는 그때 집에서 쓰레기를 다룰 때 물을 먹던 일이 떠올랐다. 중산층 생활임에도 버려야 할 물건은 언제나 잡다했고, 거기에 남비의 뉘까지 들어 있었다. 지구가 과연 몸살을 앓을 만도 했다. 어디 이 뿐이라. 지구인이 자랑해 마지않는 나날이 새로



맹란자
 <수필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재앙 앞에서
 진실 못건지면
 앞으로도...”

했다. 이런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수마는 한 곳도 배치지 않고 전역을 예외없이 강타했다. 일출과 치아의 관계처럼 이것이 상(傷)하면 거짓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방송에서는 일년에 내릴 비가 한계밖에 쏟아졌다고 보도하였다. 어디에서 잘못 되었는가? 이수재가 주는 고통의 기회를 통해서 만약 우리가 진실한 자기를 건져 올리지 못한다면 이와 유사한 일들은 앞으로도 형태를 달리 하면서 되풀이 될 것이기에 두려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은 바로 그의 운명이다”라는 말을 나직하게 나는 혼자 뇌일 수밖에 없었다.

폭력·음란 日만화 국내점령 청소년 범죄 '게릴라성 유혹'

“일본 만화 주인공이 멋있게 보여 폭력서들을 만들었어.” 청소년들이 일본만화 주인공의 행태를 그대로 모방해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등 일본만화가 학원폭력의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낯익은 이야기다. 일본만화의 수법을 모방해 ‘일진회’ 등 폭력조직을 결성하는가 하면 강간 등 성범죄를 아무 죄의식 없이 저지르고 있어 우리 청소년들에게 파고든 일본만화의 폐해는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검찰은 ‘학교 폭력’과 ‘발간 마후라’ 사건 이후 일본만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음란 일본만화를 대량 복제해서 유통시킨 출판업자 2명을 검거하고 비밀강고에 보관돼 있던 외설 폭력만화 1백30여만권을 압수했다.

한국만화와 일본만화 비율은 유통상 3대 7정도로 일본만화가

압도적인 우위. 이는 인세가 반영되지 않은 복제 본이어서 중간 마진이 크다는 점 때문에 중간 판매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침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문화평론가들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선봉장은 만화·애니메이션이 될 것이 확실

인터넷·TV만화도 ‘위험’ 정부 우량만화 지원책

하다”고 보고 있다. 일본 만화는 이미 우리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매우 친숙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는 <드래곤 볼> <슬램 덩크> <세일러 문> 등의 만화책·스티커·장난감·인형 등이 가득하다.

TV와 인터넷·CD롬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1·2월 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백5편의

TV만화영화 중 국산은 7편(3.4%)에 불과한 반면 방송사들이 사들인 일본만화영화는 1백61편(78.2%)이나 됐다. 인터넷·PC통신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음란물과 CD롬 만화도 이미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 앞으로 세계최고로 자랑하는 일본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들어올 경우 국내 만화시장의 초토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만화인들은 “정부는 말로만 영상대국, 만화만이 살 길이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저질 일본만화 확산을 방지하면서 국내 만화문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산 만화(영화) 제작자들도 ‘영세하청’ ‘일본만화 번역’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올바른 정서를 함양하는 우량만화 제작을 위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즐거움의 눈 “청소년은 쉽게 모방하니...”

“바른 지혜가 생겨나지 않으면 속게 마련이다. 오목(五欲)은 급류와 같아서 한 번 빠지면 벗어나기 어려워. 마땅히 지혜라는 이름의 배나 뗏목으로 그곳을 건너 가야 한다.” <재림집요경> 판단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은 폭력·음란 만화속에서 펼쳐지는 가공의 이야기를 실제인양 착각해서 모방하기 쉽다. 이런 저질 만화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자칫하면 올바른 가치관을 상실해 불량청소년이 되기 쉽다. <정행소집경>의 “무슨 까닭으로 번뇌라 부르는가. 감각기관들이 번거로워져

즐거움을 잃게 되는 까닭이다”는 말처럼 말초적인 감각을 추구하면 가혹이나 힘든 그들의 번뇌만이 커질 따름이다. 어른들도 “방탕(放蕩)을 익혀 갈애(渴愛)를 증장시켜서는 안된다. 도리에 맞는 행위를 잘 익혀 배우고 어겨서는 안된다”는 <법구경>의 가르침처럼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 불교만화사 임기준사장은 “교육용 종교·역사만화 등 청소년들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만화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일본의 저질 만화를 막는 근본적인 방법이다”고 말했다.

매결연을 맺고 있던 신상이 어려운 가정형편때문에 4천만원의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발뺌하고 나서게 됐다. 현재 혈소판이 신상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19명의 장병들이 지난날 14일 동생(7)으로부터 골수이식수술을 받은 신상에게 혈소판을 공급해 주고 있다.

흥기로 노모·형 위협한 30대

경북 구미경찰서는 9일 흥기로 가족들과 출동한 경찰관을 쫓으며 난동을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로 금동삼시(33·무직)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금씨는 지난 8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일지리를 찾아보라”며 꾸중 하는 노모(73)를 흥기로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형(37·농업)의 왼쪽팔을 흥기로 찌른 데 이어 출동한 구미경찰서 도개파출소 리준광 순경의 목을 흥기로 찌른 혐의다.

병원에 점 23곳 불랑식품 판매

영동 세브란스병원·인암고대병원·이화여대 목동병원 등 23곳의 대형병원의 구내매점들이 무허가로 제조된 김밥과 대장균이 든 햄버거를 파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채 영업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전국 각 병원 구내매점 1백63곳의 식품위생 상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관계규정을 위반한 매점 23곳을 적발, 시·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호녀 경미’에게 온정답지

SBS가 지난달 26일 방송한 <일요특집 출발 모닝와이드>를 통해 감동적인 사연이 알려진 고2년생 ‘경미’에게 성금과 안구기증 의사를 전해오는 등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시각장애자인 아버지 이의성씨(56)와 함께 단 둘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경미는 3살때 아버지가 시력을 잃은 이후 겨우 걸음마를 하던 시기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길거리로 나서 수줍한 폐지나 병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충남도 교육청 미담 창구 개설

충남도교육청(교육감 오재욱)은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10일 ‘이웃사랑 미담 창구’ 접수창구를 개설했다. 초등장학사와 전화(042-580-7221)나 편지를 하거나 직접 문에 알려주면 된다. 교육청은 미담사례를 심사해 교육감 표창과 함께 ‘이웃사랑 기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공군장병 투병소녀 돕기 헌혈

공군 제 15혼성비행단 장병은 재생분양성 빈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신인정양(9·서울 대왕초등 3년)을 돕기 위한 헌혈운동과 모금운동을 한달째 벌이고있다. 장병들은 부대와 자

실적자 올린 단단계 금융사기

전남지방경찰청은 10일 실적을 상대로 불법 단단계 금융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방관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위너스투자(주) 대표이사 박국현(51)씨와 이 회사 광주지점장 정광진(29)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박씨 등은 사립자 등록없이 지난 1일부터 광주시에 1빌딩 6층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실적자·가정주부들에게 계속된 일정한액 입금시켜 조합원이 되도록 한 뒤 새 투자자를 유치하면 수당을 주는 방법으로 1백60여명으로부터 모두 1억7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농약 요구르트’ 아바가 범인

농약 요구르트를 마시고 숨진 금동민군(12·초등 6년)사건의 범인은 사실상 금군의 아버지인 것으로 드러나 11일 경찰이 금군의 아버지에 대한 공개수배에 나섰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심야영업 철회하라”

종교·시민단체 ‘백지화 서명운동’

정부의 유흥업소 심야영업 허용방침에 대한 종교·시민·소비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불교시민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10개 종교·소비자·여성단체들은 지난 3일 ‘유흥업소 심야영업 허용 철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모임’을 결성,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유흥업소로 인한 주민생활 피해사태를 신고받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전국 1백50여곳의 소비자개발센터를 가동, 유흥주점의 폐쇄적인 영업행태와 취객들의 고성방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 사례 등을 접수받아 자료를 분석해 악덕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들은 또 이달중 유흥업소의 심야영업 허용을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공청회와 가두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YMCA연맹 등 36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생활개혁실천 범국민협의회’는 같은 날 서울 명동 YWCA회관에서 ‘유흥업소 심야영업 허용철회 촉구집회’를 갖고 시민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날 집회에는 “시민들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지난달 27일 식품위생법시행령을 개정, 심야영업 허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부에 강력 항의한다”면서 “정부가 심야영업 허용을 철회할 경우 야간 횡포집회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유흥업소 피해사례 대표 신고전화는 (02)793-8081. 김재경 기자

佛經漢文學會

법화경·한문·무료 강좌 안내
 본 회에서는 부산·경남·대구·경북지역 불교인구의 저변확대와 자질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화경과 교양한문 무료강좌를 하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아래 ●
- 부산
 - ①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
 - ② 장소: 좌천동 우체국옆길·파란들가자3층 (한국승가대학원 부산강의실)
 - ③ 전화: 051)633-6224
- 대구
 - ① 일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 ② 장소: 신암2동 강남 APT 정문 서쪽 2층 (한국승가대학원 대구강의실)
 - ③ 전화: 053)952-8711

한국승가대학원
 책임교수 최광영
 0502-952-8711
 017-501-8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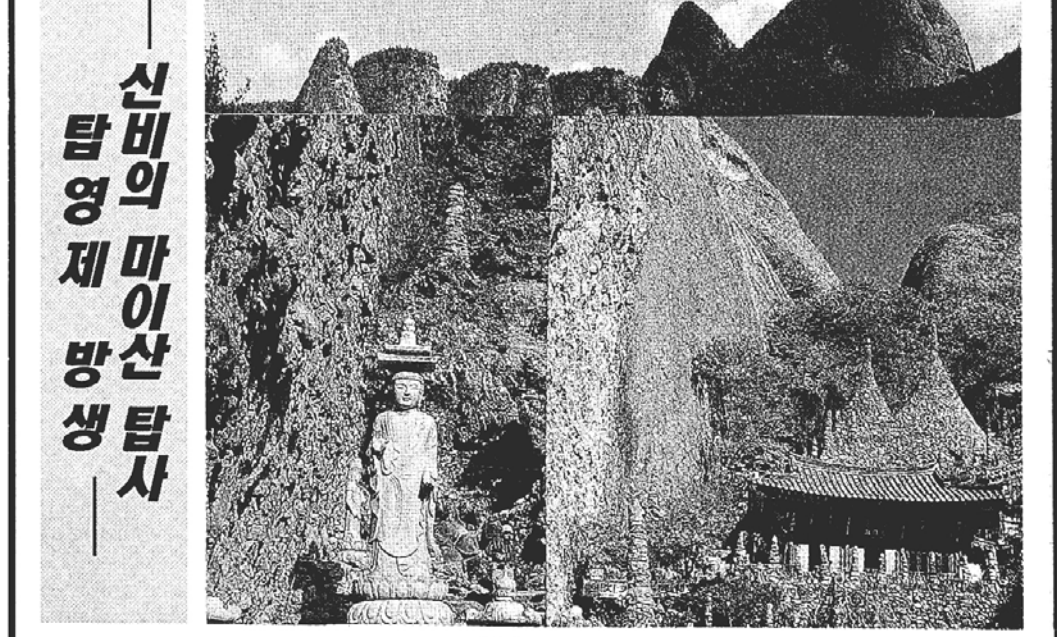
염불禪 주말 수련회 (토요일 저녁9시 / 일요일 아침7시)

- 육박하지 않고 자신의 운물에 맞춰 힘차고 박력있게 경쾌하고 신명나게 재미있고 리드미컬하게 행주와와 종주간에 자동으로 염불되고 단정호흡 되는 한국불교 전래이래 처음 공개되는 염불禪 수련법
- 큰소리로 정시간 염불해도 절대 목이 아프거나 쉬지않고 오히려 목소리가 터지며 맑아짐, 실어짐이 극복되고 가슴이 탁트어 시원해지며 피로감을 못느낀다.
- 염불 수련시 허가 이완되어 임천장을 탁탁치면 대뇌가 각성되어 또렷도터 해져서 졸음과 혼침이 극복되고 참은 저절로 남여기며 중단전의 맞힌 기가 풀리며 스트레스는 저절로 해소되고 올곧은 자세가 계속 이어진다.
- 근심 걱정의 악업이 가슴에 맺힌 한이, 병고애타는 괴로움이 번갯불처럼 녹아내리고 문재해결의 지혜가 순간 떠오르며 긴장한 소원은 즉각이루는 기도 수행시 가장 용이한 염불법이다.
- 독경을 잘하려면 세로쓰기 한글 경전을 한줄씩 읽고 왼손가락을 하나씩 헤아리면서 오른쪽의 직권이 열리며 집중력 기억력 좋아지고 번뇌망상의 잡념이 현저히 줄어들고 또렷도터하고 정신맑은 상태로 독경삼매 이른다.
- 아무리 짧은척 대단한척 아는척해도 이마와 정수리에 열나고 손, 발, 배가 차가우며 배급주변 인중, 눈썹, 손가락사이를 놀리보아 멍하게 있고, 흥분을 느끼면 몸뚱이 하나 다스리지 못해 안병의 원인운 긴장한 부끄러운 예비한자이다. 비전의 수행으로 일생 감기 몸살 안걸리고 두통, 불면증, 상기병, 화병, 위장병, 고혈압, 당뇨병이 단시일에 극복된다.

아름다운 소리산
 푸르고온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수행전문상담전화 (0338) 71-7745 (오후 1시~8시)
 금강산처럼 수려한 소리산 16만평의 영지에 위치한 청정한 수행전문도량일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마이산 탐사
 한국의 불가사의 만분탐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진안 마이산 탐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